

Keyword Analysis

키워드를 검색해 네이버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

뉴미디어프로젝트팀
한 규 원

목차

01

개요

02

기능설명

03

활용방안

01 | 개요

1. 단어, 개월 수 입력만으로 네이버 뉴스 기사 및 댓글 자동 분석

분석이 필요 한 단어와 분석을 진행하는 날짜 기준 최근 몇 개월 기사만 수집할지 입력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보여줌

☑ 사용자 입력 받기

Keyword Analysis

키워드들을 입력해 네이버 뉴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분석

분석할 단어?

분석할 개월 수

최근 몇개월 내 뉴스기사를 수집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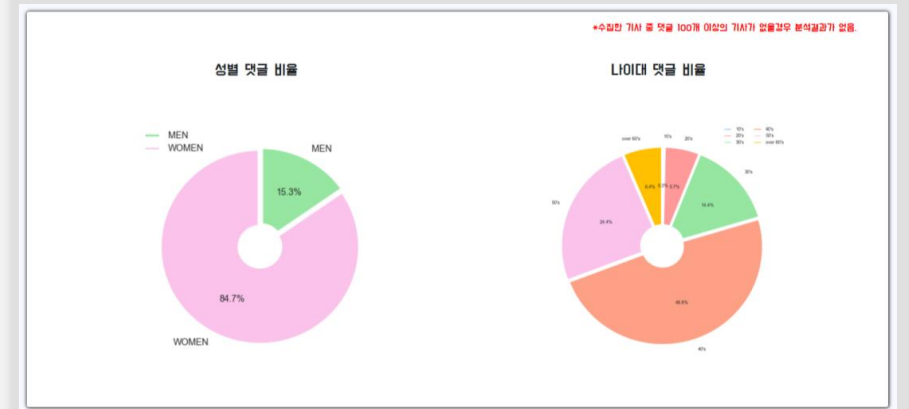
분석

분석결과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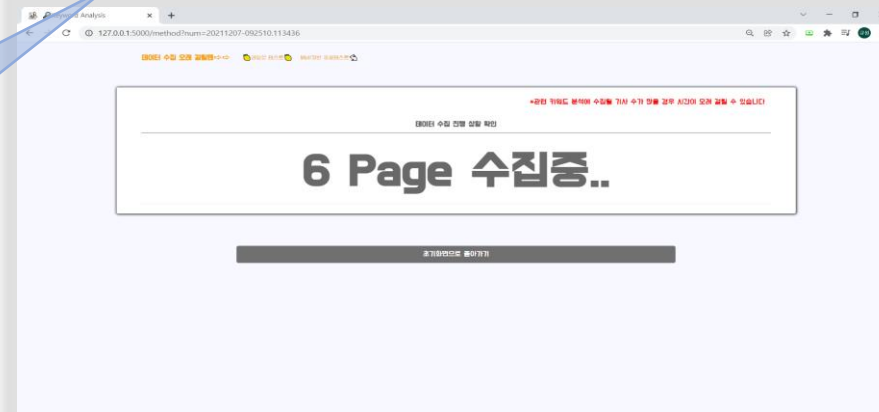
※본 서비스는 네이버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1. 키워드 입력
2. 수집할 개월 수 입력
3. 분석할 키워드 입력
4. 분석할 개월 수 입력
5. 분석 결과 보기

☑ 분석결과 노출



☑ Web Scraping을 통한 데이터 수집 후 분석을 진행



Web Scraping 이란?
소프트웨어 기술로 웹사이트 등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

2. 수집된 데이터 목록

12:08

파이낸셜뉴스

펑수, '국민콜110' 특별상담사로 변신...민원 상담 일일 체험

기사입력 2021.11.26 오전 9:00 | [기사원문](#) | [스크린](#) | [본문듣기](#) | [설정](#)

👍 211 👎 24

🔖 [요약본](#) [가](#) [🔒](#) [🔗](#)

/사진=동원픽

【파이낸셜뉴스】 EBS 인기 캐릭터 '펑수'가 국민콜의 위원회와 함께하는 '국민콜110' 특별상담사로 활동한다.

펑수라는 국민콜110 특별상담사 펑수가 다양한 민원을 상담하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26일 오후 7시 35분 EBS1 자이언트 펭TV에 방영될다고 밝혔다.

펑수는 국민콜110 고객센터에서 하루 동안 특별상담사로 근무하며 국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상담한다.

이 과정에서 펑수는 불법 주장한 신고나 다른 기관의 민원청리에 도움을 가진 합의를 다양하게 어려운 민원으로 출현해 왔었다는 선배 상담사들의 경험을 해설해 나간다.

또 펑수는 상담사들이 겪었던 고충과 보람에 대해 전해 들린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국민콜110에 전화하면 행정·복지·고충 등 다양한 행정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또 전화 상담뿐 아니라 카카오톡 상담, 콜라민(화상수어, 채팅, 사회관계망 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콜110은 행정청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16개 기관과 연결돼 있으며 228종의 전문상담서비스 24시간 110으로 상담한다.

전국최대 국민콜의위원장들은 "국민콜110의 상담서비스 향상과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필 기자 (honesty82@fnnews.com)

✓ PICK ①

엑스포특파 | 연초에 설정 | 연초에 뉴스 | 라이브(9)

파이낸셜뉴스 펑수 뉴스

오전 8시~오전 9시까지 정해진 결과입니다.

1 "어머 저도있지 마세요" 대서 레
경스 이제 일삼독 왔다
③ 22시간전

2 미연대대서서 '입심전' 미스 공
1등은 페트남 미녀가 ...
③ 17시간전

3 북한 여군 출신 담보자 '성폭행
당하고 하체'에 강제 낙 ...
③ 4시간전

4 오마르를 강제로노니 "이혼한 연
대, 사출간 '극도로 피곤'
③ 14시간전

5 조동영 오고 고사 '속살을 데 없
던 아이' 글 공시되니 ...
③ 24시간전

프랑스 국립 자연사박물관 특별전 바다의 미지의 위험

12월 1일부터 8시생존

분야별 주요뉴스

윤석열이문서 '방백'한 '강박' 변신... '강박'은 여경...
강성명 "윤석열, 지지를 떨어지니 이문서에 '고개 숙여'
[속보] '신규' 직원 7000명 '불만'... '공공기관' 관련...

우주로 오마르를 전파적... '마르스' 쓰고 1등 대학생...
화이자 CEO '오마르'를 전파적 강... 다른 변이 일로...

비트코인은 왜 갑자기 폭락했을까

상장전자 '한정'경제한 주점 제로...
60% 일차리 38만 개 누 때 2030 일차리 8만 개만 증가
게임 일기 없으면 NFT도 무용지물... '프로도' 등장한 건 ...
상설, 큰 사모이 제치고 3분기 제이비전 시장 2위로...

확진자 첫 6000명... 오마르를 사들 확인
21일 유드선수 '백신' 맞고 백혈병... 67만 전 한혈 매...
오마르를 확진... '당장' 대대적 '한혈' 이후 없다...
'오징어' 게임 '조 비공'정확성 '자율성' 3개 주요...

온도도, 겨울도... 조동영 '사적' 미사연지 '일정'제...

연초에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①

오전 8시~오전 9시까지 정해진 결과입니다.

🔖 [요약본](#) [가](#) [🔒](#) [🔗](#)

☒ 기사제목, 기사내용, 기사 업로드 날짜,
기사 업로드 언론사, 기사링크(URL)

349개의 댓글

현재 댓글 **342** | 작성자 삭제 **7** | 규정 미준수 **0**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

성별	나이	비율
남자	10대	0%
남자	20대	3%
남자	30대	29%
남자	40대	48%
남자	50대	16%
남자	60대+	4%
여자	10대	0%
여자	20대	3%
여자	30대	29%
여자	40대	48%
여자	50대	16%
여자	60대+	4%

lawest

제작과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토론문화와 양질의 댓글 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또는 특정 계층/민족, 종교 등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 300

등록

순광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달글순 과거순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 설정

chic****
2021.12.07. 22:21
이 광고 얼마예요?
달글 11

iseo****
2021.12.07. 22:32
그냥의 차박 차박 차박 차에서 저자는 남들이 그렇게나 많냐? 트렁크 짝 비우고???
달글 26

wa10****
2021.12.07. 22:20
그랜드에 9천을 배워---어여 짚은영반 신사달게 행동해!
달글 11

katt****
2021.12.07. 23:21
주차 면세 꺼지지 말고 적당하자 타라xx xx
달글 22

wall****
2021.12.07. 23:15
히기성 기레기남 얼마 받으셨어요? 당장 광고성기사 남발해도 상관 없나요?
달글 2

sung****
2021.12.08. 00:12
이게 유명한 가를 찰질 편다는 그 차?
달글 4

☑ 댓글, 댓글 수, 댓글 별 좋아요, 싫어요 수,
성비, 나이 대, 댓글 업로드 날짜

***댓글이 100개 안 넘을 경우 성비 및 나이 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집에서 제외됩니다.**

02 | 기능설명

1. 분석 키워드 및 개월 수 입력만으로 분석 진행.

* 분석 단어 및 개월 수 입력만으로 자동으로 네이버 기사에 접근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을 진행

←

→

↺

⚠ 주의 요함 | 10.101.115.150:5000

🔍

🔗

★

📺

⚙️

☰

회원

⋮

🔍

Keyword Analysis

키워드를 검색해 네이버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

분석할 단어는?

분석할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네이버 기반 검색키워드 상세설명(ctrl+click)

최근 몇개월 내 뉴스기사를 수집하시겠습니까?

최근 1주일: '7' 입력, 최근 1개월: '1' 입력, 최근 3개월: '3' 입력, 최근 6개월: '6' 입력, 최근 1년: '12' 입력

Analysis

분석결과 및 진행상황 URL 확인

*관련 키워드 기사가 없을시 분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Main Service

1. 단어입력만 하면 네이버뉴스에 한해 다양한 관련 데이터 수집
2. 수집데이터: 기사제목, 기사본문, 기사업로드날짜, 댓글(수, 내용, 업로드날짜, 성별, 연령대, 시간)
3. 직접 분석진행 할수있게 수집된 원본데이터 제공

NOTICE

1. 전체뉴스중에 네이버 뉴스 기사 정보만 수집합니다
2. 뉴스 기사 댓글 중 성별, 나이대 정보가 없는 기사도 있습니다
3. 관련 없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 같이 정보수집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수집데이터가 많으면 수집시간이 오래걸립니다(1개월~3개월 수집 추천)
5. 최근 몇개월 입력을 잘못할경우 기본값으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유지보수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

Email = laweat@naver.com

2. 다양한 분석 결과 제공

* 키워드 관련 분석 기간 내 가장 이슈가 된 기사를 한눈에 확인 가능

Print 및 PDF저장			
분석키워드	수집기간	수집된 기사 수	수집된 댓글 수
EBS 위대한수업	3개월	18개	1035개

*댓글수 기준			
순위	기사 제목	댓글 수	언론사
1등	"교육방송에서 근친상간 동성애 지지자 강연이라니... 방영 취소하라"	292개	국민일보
2등	'퀴어 이론' 대가 주디스 버틀러 할당 '공격' 뒤호히 포아넨 EBS	288개	한국일보
3등	독일 교육계선 '소아성애' 과거사 청산 끝인데 우리 교육방송은 역행	145개	국민일보
4등	EBS 이시광, 이번에도 유시훈	79개	미디어오늘
5등	인자리에 모인 세계 석학, 그들은 왜 EBS 초청에 응했나	62개	미디어오늘
6등	'아이의 사랑' 강조하는 버틀러에 EBS는 과수성 있게 응답해야	51개	국민일보
7등	이광재 "교육관 네티즌스 조성, 질문하는 인재 키워자"	47개	ZDNet Korea
8등	유시훈, EBS 이시광 개성일	28개	한국일보
9등	대한학교 10대들의 켄더퀴동성연식, 안 번 보실래요?	14개	오마이뉴스
10등	주디스 버틀러는 말했다 "트랜스 혐오 페미니즘 받아들이 수 없다"	10개	한겨레

* PDF저장 및 인쇄 가능

Print 및 PDF저장			
분석키워드	수집기간	수집된 기사 수	수집된 댓글 수
EBS 위대한수업	3개월	18개	1035개

*댓글수 기준			
순위	기사 제목	댓글 수	언론사
1등	"교육방송에서 근친상간 동성애 지지자 강연이라니... 방영 취소하라"	292개	국민일보
2등	'퀴어 이론' 대가 주디스 버틀러 할당 '공격' 뒤호히 포아넨 EBS	288개	한국일보
3등	독일 교육계선 '소아성애' 과거사 청산 끝인데 우리 교육방송은 역행	145개	국민일보
4등	EBS 이시광, 이번에도 유시훈	79개	미디어오늘
5등	인자리에 모인 세계 석학, 그들은 왜 EBS 초청에 응했나	62개	미디어오늘
6등	'아이의 사랑' 강조하는 버틀러에 EBS는 과수성 있게 응답해야	51개	국민일보
7등	이광재 "교육관 네티즌스 조성, 질문하는 인재 키워자"	47개	ZDNet Korea
8등	유시훈, EBS 이시광 개성일	28개	한국일보
9등	대한학교 10대들의 켄더퀴동성연식, 안 번 보실래요?	14개	오마이뉴스
10등	주디스 버틀러는 말했다 "트랜스 혐오 페미니즘 받아들이 수 없다"	10개	한겨레

*댓글수 기준			
순위	기사 제목	댓글 수	언론사
1등	"교육방송에서 근친상간 동성애 지지자 강연이라니... 방영 취소하라"	292개	국민일보
2등	'퀴어 이론' 대가 주디스 버틀러 할당 '공격' 뒤호히 포아넨 EBS	288개	한국일보
3등	독일 교육계선 '소아성애' 과거사 청산 끝인데 우리 교육방송은 역행	145개	국민일보
4등	EBS 이시광, 이번에도 유시훈	79개	미디어오늘
5등	인자리에 모인 세계 석학, 그들은 왜 EBS 초청에 응했나	62개	미디어오늘
6등	'아이의 사랑' 강조하는 버틀러에 EBS는 과수성 있게 응답해야	51개	국민일보
7등	이광재 "교육관 네티즌스 조성, 질문하는 인재 키워자"	47개	ZDNet Korea
8등	유시훈, EBS 이시광 개성일	28개	한국일보
9등	대한학교 10대들의 켄더퀴동성연식, 안 번 보실래요?	14개	오마이뉴스
10등	주디스 버틀러는 말했다 "트랜스 혐오 페미니즘 받아들이 수 없다"	10개	한겨레

* 기사제목 클릭 시 관련 기사로 이동

국민일보

"교육방송에서 근친상간 동성애 지지자 강연이라니... 방영 취소하라"

30면 1단 | 기사입력 2021.09.10. 오전 3:0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462

310

오락봇

가

학부모, 교사 단체·법률가회 등 성명

EBS 추석 연휴 중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통해

젠더이론가 주디스 버틀러 방영 예정

2. 다양한 분석 결과 제공

* 키워드 관련 분석 기간 내 가장 이슈가 된 댓글을 한눈에 확인 가능

핫이슈 댓글 TOP10

***좋아요+싫어요 합 기준(댓글 클릭시 관련 기사로 이동)**

댓글	like	hate
1	286	53
2	310	6
3	211	18
4	227	1
5	154	7
6	139	13
7	145	5
8	119	13
9	129	0
10	111	18

[핫이슈 댓글 더보기](#)

좋아요 수으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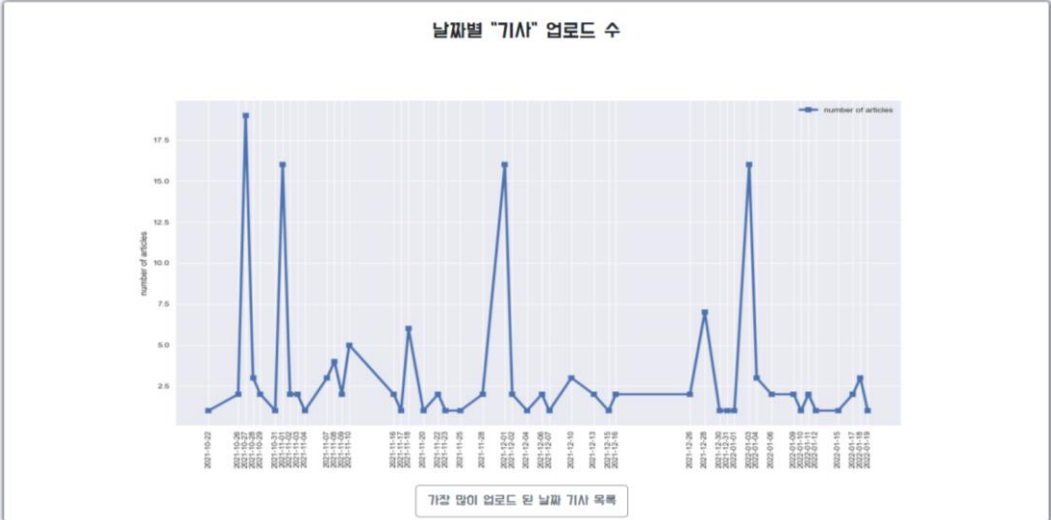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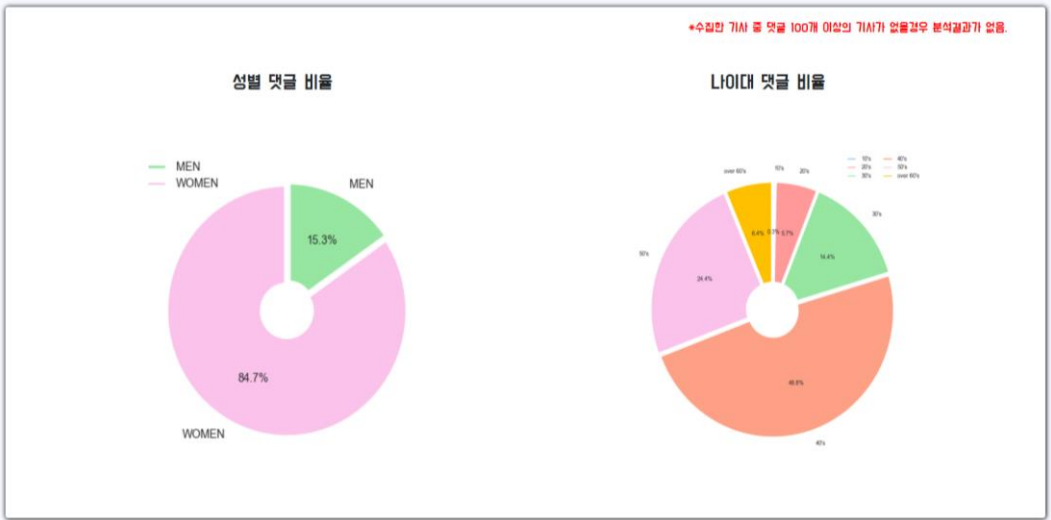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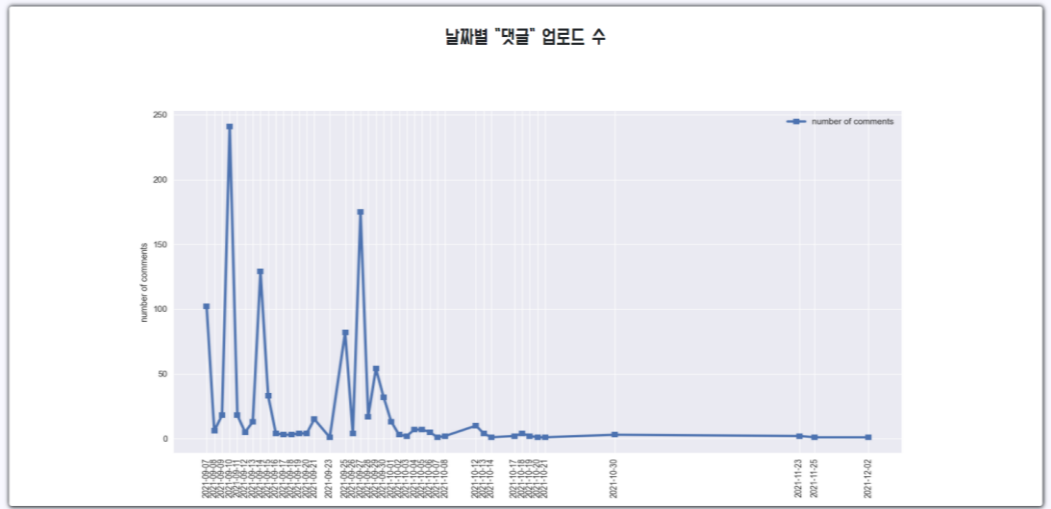
싫어요 숨으로 보기

*** 댓글 클릭 시 관련 기사로 이동**

* 핫이슈 댓글 더보기, 좋아요 순으로 보기, 싫어요 순으로 보기 기능 제공.

35	논리가 인문학에겐 절대라는 반대하면 참소주의자냐	37	1
36	어떻게 부모 자식간의 상관관계가 정립되어야 이치가 하는가? 근친상간은 역사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극심한 피해를 남긴 행위는 금지될 형식이야. 모든 성적인 관계가 다 허용되고 전제가 무너지면 이 사회에 질서는 무너지고 인간은 무엇인가하는가? 이것이 사립의 사치인가? 물론 그렇다. 좋은 것 가리는 교화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인간이 좋은 남나름다는 것은 스스로가 틀림없다 못만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37	0
37	교육방송에 출연한 김진 태미리는 저절로 관심가지고 지켜보던 학부모 실망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 했을까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 키우려면 정정교과가 되어야는 결론에 도달 했을 겁니다. 정신 병 진단받은 김진태는 2030 세대를 갖게 보수화 시켰고 학부모들 까지 강하게 보수로 돌아서게 하는 전파효과를 발휘한 일들중순으로 역사에 남을겁니다	33	2
38	조지프 나이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직자의 깊은 통찰과 통찰으로 정말 세계의 석학들이 가진 놀라운 지식이 무려 나라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로 전파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두 미만을 쓴 일머리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논술강사로서 주디스 버틀러 교수와 세 설화가 된 것이지 그녀의 어떤 사상이 유래하다가 판단한 것인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재직자의 답변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계시한 들은 통해 재직자 질문하는데도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4	10
39	무자성 정의와 참소는 전제타당에 종속 아닌가? 왜 시민의 요구를 참소해야하지?	32	1
40	주디스 버틀러 전과교육 부국학달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외해주세요.	22	9

2. 다양한 분석 결과 제공



2. 다양한 분석 결과 제공

* 주차 별 댓글 빈도수를 한눈에 비교하여 주차별로 이슈 변화를 손쉽게 확인 가능

주차별 댓글 빈도수

*삭제된 댓글은 작성댓글로 삭제된 댓글 수입니다.

주차	댓글 : 빈도수	삭제 댓글수
36주차	교육: 184 방송: 124 아이들: 69 근친살간: 61 소아성애: 59 반대: 57 사람: 51 버틀러: 45 주디: 38 정말: 25	12개
37주차	방송: 43 교육: 32 아이들: 32 사람: 27 소아성애: 26 주디: 18 버틀러: 18 근친살간: 18 정말: 8 말도: 8	20개
38주차	교육: 33 방송: 26 버틀러: 18 반대: 14 사람: 14 근친살간: 14 주디: 12 아이들: 12 소아성애: 9 대한: 5	7개
39주차	교육: 102 방송: 62 소아성애: 49 사람: 48 근친살간: 44 반대: 34 아이들: 33 주디: 30 버틀러: 27 정말: 20	24개
40주차	교육: 7 사람: 4 내용아: 2 바라보는: 2 페마: 2 유시준: 2 어사장: 2 아들: 2 마약: 2 일수: 2	2개
41주차	교육: 3 척결: 2 기획하고: 2 우리나라에서: 2 정말: 2 너무: 2 아이들: 2 무조건: 2 이야기: 2 결혼배경리야: 1	2개
42주차	교육: 4 근친살간: 3 그대로: 2 잘: 2 예유: 1 페미니네들: 1 이재: 1 세력: 1 다조그라들어서: 1 다중어짓: 1	1개
43주차	우리는: 3 대한: 2 중국인들아나아슬람: 1 보내고: 1 북한발는게: 1 청담이다북한안: 1 인공: 1 문제가: 1 우리가: 1 돌입들: 1	2개
47주차	닌랑아: 1 단결단: 1 상태에서의: 1 방송: 1 결과반으로: 1 신체반응과: 1 무섭다는: 1 느낌은: 1 별개라고: 1 주장할: 1	1개
48주차	오마르톤: 1 강열: 1 이재영: 1 택시: 1 속아: 1 꼭: 1 찬: 1 만두는: 1 소비자원아: 1 알아왔다: 1	1개

1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2						1	2
01	3	4	5	6	7	8	9
02	10	11	12	13	14	15	16
03	17	18	19	20	21	22	23
04	24	25	26	27	28	29	30
05	31						

2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5		1	2	3	4	5	6
06	7	8	9	10	11	12	13
07	14	15	16	17	18	19	20
08	21	22	23	24	25	26	27
09	28						

3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		1	2	3	4	5	6
10	7	8	9	10	11	12	13
11	14	15	16	17	18	19	20
12	21	22	23	24	25	26	27
13	28	29	30	31			

4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3						1	2
14	4	5	6	7	8	9	10
15	11	12	13	14	15	16	17
16	18	19	20	21	22	23	24
17	25	26	27	28	29	30	

5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7							1
18	2	3	4	5	6	7	8
19	9	10	11	12	13	14	15
20	16	17	18	19	20	21	22
21	23	24	25	26	27	28	29
22	30	31					

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2		1	2	3	4	5	
23	6	7	8	9	10	11	12
24	13	14	15	16	17	18	19
25	20	21	22	23	24	25	26
26	27	28	29	30			

7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6				1	2	3	
27	4	5	6	7	8	9	10
28	11	12	13	14	15	16	17
29	18	19	20	21	22	23	24
30	25	26	27	28	29	30	31

8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1	1	2	3	4	5	6	7
32	8	9	10	11	12	13	14
33	15	16	17	18	19	20	21
34	22	23	24	25	26	27	28
35	29	30	31				

9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5				1	2	3	4
36	5	6	7	8	9	10	11
37	12	13	14	15	16	17	18
38	19	20	21	22	23	24	25
39	26	27	28	29	30		

10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9					1	2	
40	3	4	5	6	7	8	9
41	10	11	12	13	14	15	16
42	17	18	19	20	21	22	23
43	24	25	26	27	28	29	30
44	31						

11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4		1	2	3	4	5	6
45	7	8	9	10	11	12	13
46	14	15	16	17	18	19	20
47	21	22	23	24	25	26	27
48	28	29	30				

12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8				1	2	3	4
49	5	6	7	8	9	10	11
50	12	13	14	15	16	17	18
51	19	20	21	22	23	24	25
52	26	27	28	29	30	31	

4.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 크롤링 특성상 수집할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때문에 분석을 진행하고 나중에 URL 접속을 하여 결과 및 진행상황 확인 가능.

Keyword Analysis

127.0.0.1:5000

Keyword Analysis

키워드를 검색해 네이버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

분석할 단어는?

분석할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네이버 기반 검색키워드 상세설명(ctrl+click)

최근 몇개월 내 뉴스기사를 수집하시겠습니까?

최근 1주일: '7' 입력, 최근 1개월: '1' 입력, 최근 3개월: '3' 입력, 최근 6개월: '6' 입력, 최근 1년: '12' 입력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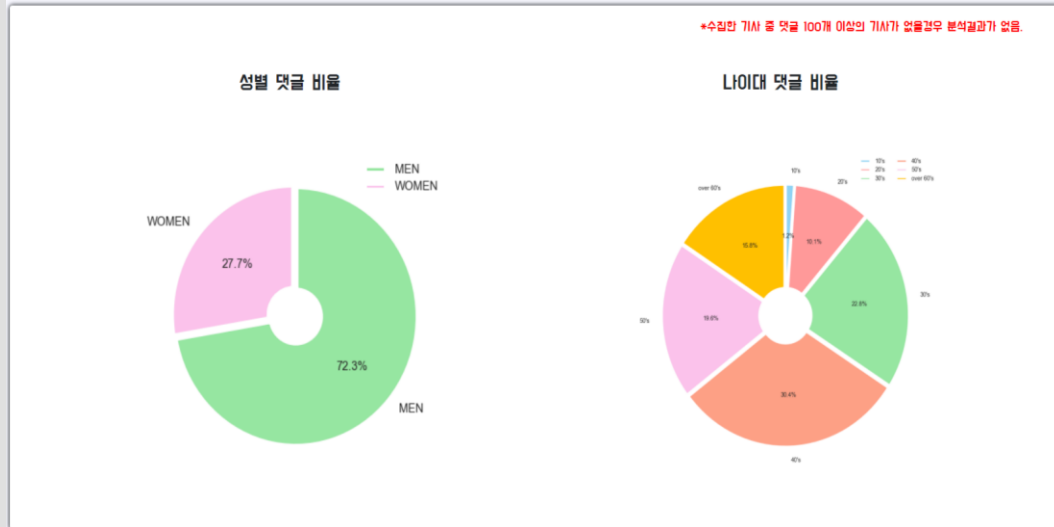
합기기

분석결과 및 진행상황 URL 확인		분석단어	수집기간
1	http://10.101.144.89:5000/method?num=20211209-100301.131730	빅데이터	1개월
2	http://10.101.144.89:5000/method?num=20211209-100025.911475	위대한수업	6개월
3	http://10.101.144.89:5000/method?num=20211209-094936.858122	EBS	3개월

03 | 활용방안

1. 프로그램을 활용한 'EBS 펍수 - 12개월' 분석결과

* 1년치 뉴스 기사 및 댓글 분석을 수작업으로 데이터 수집 부터 분석까지 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함.



분석키워드	수집기간	수집된 기사 수	수집된 댓글 수
EBS 펍수	1년	1667개	41587개

찾아수 기사 TOP10

*댓글수 기준

순위	기사 제목	댓글 수	업종사
1등	KBS 1340원→EBS 120원... KBS 수신료 올려도 '펍수' 뚫은 고약...	1013개	에픽드강제
2등	"이제는 1일 1등"... 양류보 집합한 '를' 찾았네	432개	조선일보
3등	펍수-통영대입 노노가 음연 논란..."교육방송에 왜 '왕본이이'	263개	서훈신문
4등	KBS 수신료 2500원도 비싸다(오늘과 내일/이집집)	263개	통아일보
5등	KBS 수신료 인상예 EBS까지 관측..."펍수 뚫은 고약 120원..." [IT선발]	187개	에픽드강제
6등	KBS 수신료 인상의 미래마르	186개	미디어오늘
7등	TV조선 원상설 앞둔 안 보여 "이들온 전 3인 대법원과 금융수수 의혹, 언론"	99개	매일신문
8등	드레스부터 '펍수'까지...펍수 스타일, 이 순에서 나옵니다	81개	서훈신문
9등	광고계, 펍수와 '펍수' 원형했다...2020년 CF 조회수 TOP5 3관왕	75개	머니투데이
10등	EBS, '펍수' 특목요사 선정에 "신음" 기아졌다	66개	미디어오늘

찾아수 댓글 TOP10

*좋아요+싫어요 합 기준(댓글 클릭시 관련 기사로 이동)

댓글	like	hate
1 국민들이 통 발았지. 선거 좀 길하지	5570	322
2 KBS 시청료 한문도 못 올려준다 저게 방송이거 정권의 나팔수지 그동안 낸 시청료 올려다오	3975	33
3 난 한달동안 KBS 시청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데, 무슨 권리로 시청료를 그렇게 올려 징수한다고 그러니..? KBS 폐업해도 하지도 안답답하다. 그냥 채널 폐장을 추천한다-	2267	18
4 문뜬덕ㅋㅋㅋㅋ	1296	262
5 인보는데 수신료 안낼수는 없나요?	789	11
6 다들당 걸림이 빠지른 통, 이제 잘지 말고 폐국이 청소하여 다시는 더러운 통 발지 말지.	707	62
7 문제가 정부는 1일 1통 중	569	99
8 세계가 이상해지는게 안느끼지니?	578	30
9 시청료를 올려달라고?? 치니가네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봐라 정권 때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10통 8 9다 근데 올려달라고? 문을 닫아이지 ㅋㅋ	582	18
10 수신료 폐지하고 민영화해라..Kbs 삭제한지 오래다	534	4

댓글 빈도수 순위

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1등	펍수	728개	11등	진짜	135개
2등	수신료	718개	12등	시청료	134개
3등	방송	296개	13등	일본	131개
4등	국민	270개	14등	없애	125개
5등	광고	227개	15등	공영방송	118개
6등	동원	179개	16등	안보	117개
7등	댓글	168개	17등	민들	111개
8등	너무	158개	18등	보지	111개
9등	사람	148개	19등	말이	110개
10등	물지	135개	20등	생각	106개

댓글 빈도수 시각화(WordCloud)

☑ 분석도구 및 라이브러리



감사합니다